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질의에 대한 〔기호4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 양옥경 답변서

1. 질의1. 상담 및 심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의 위기가 증가하고 정신건강서비스 및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 1월 14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에서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5개년 계획으로 먼저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 중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생애주기적으로 전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의 범위, 역할과 서비스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스크리닝과 조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수행을 해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개입 함으로써 온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상담 및 심리영역에서 추진 중인 심리서비스 법안을 “적극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미 국가자격으로 지난 25년여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을 지켜온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내실화하며, 수련제도와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을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에 힘을 쏟을 것이며,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작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현재 국가 자격이지만, 이를 향후 ‘면허’로 제도화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대정부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1995년 대정부 활동을 통하여 정신보건법 제정 작업을 추진한 사람 중의 한명이며, 1992년에는 정신보건법대책위원회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국회를 대상으로 정신보건법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요원을 포함시키는데 일역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이란 개념을 처음 소개하고 책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정신건강을 우리나라에서 실현하고 정착시켜나가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堂堂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지닌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발휘할 것입니다.

2. 질의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더불어 정신질환자 복리증진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한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 공약 1-1-1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관련 복지기관 의무 배치 추진”을 이미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과 대정부 활동, 국회의원들과의 협력 및 옹호활동 등 제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공약을 실행함으로써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경력을 인정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 취업, 복지서비스,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책임자로서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와 지역사회정신건강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호4번 양옥정 후보의 공약 중>

**1-1.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

**1-1-1. 법률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022.6.22. 시행) 상 지자체별 처우개선위원회 모니터링, 모든 지자체 조례 제·개정운동 및 단일 임금제 도입 추진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상 사회복지직렬 포함, 연구직이나 지도직등의 공무원 진출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관련 복지기관 의무 배치 추진

3. 질의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한 후보자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이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환경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회비 이중납부의 부담 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위한 제도나 옹호활동이 부족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현황으로 인하여 소수만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대처해야하는 각종 사회적 현안들과 자격제도와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응하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3-3-2. 다양한 직능 단체들과 네트워크 강화: 직능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직능 단체들의 회비 이중 납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 강화”**의 공약을 이미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당선된다면,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하여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소속 협회와 한사협에 각각 회비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으로 한사협 활동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사로서 한사협을 통하여 옹호와 지지를 받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호4번 양옥경 후보의 공약 중>

### **3-3. 지방협회 및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 **3-3-1. 지방협회 동반성장**

- 지방협회들이 지방의 주요 전문직 단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연1회 17개 각 시도 지방협회에서 연찬회 개최 - 지방협회 회원 의견 적극 경청
- 17개 시도의 기초단위 별 시·군 사회복지사협회의 설립 및 유지 적극 지원

#### **3-3-2. 다양한 직능 단체들과 네트워크 강화**

- 직능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 직능 단체들의 회비 이중 납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 강화

#### **3-3-3. 다양한 재단 및 사회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 기업재단 및 기업 내 사회공헌팀과 유기적 교류, 협력